

#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에 대한 자율 학습 교재



Multi-Language Publications

Bringing the Word to the World

원래 교재는 위스콘신 복음주의 루터란 교단의 the Institutional Ministries Committee of the Commission on Special Ministries에 의해 만들어졌음

저작권 2001년도

교재는 위스콘신 복음주의 루터란 교단의 다국어 출판사에 의해 채택되었고 동서울 가나안 교회 문서 선교부에 의해 번역되었음

2014년도에 출판

모든 표지와 흑백 그림들은 모두 Glenn Myers의 작품임. 그의 그림들은 Northwestern Publishing House에게 권리가 있음.

성경 구절들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따온 것임.

제12권



# 목차

서문 .....	1
제1장 율법의 대단한 영향력 .....	3
제2장 율법의 첫번째 서판 .....	21
제3장 율법의 두번째 서판 제1부 .....	45
제4장 율법의 두번째 서판 제2부 .....	67
제5장 십계명에 순종하기 .....	85
복습 문제 해답 .....	99
총정리 시험 .....	101



## 서문

이 책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각 다섯 장에는 \*로 표시되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 목표들을 보면 그 장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각 장 안에는 부분마다 문제들이 있고 다 배우고 나면 마지막으로 그 장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각 부분의 내용을 주의깊게 읽으면 시험 문제들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각 장을 다 배우고 나면 앞에 있는 목표들을 다시 읽으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각의 문제들과 각 장 마지막에 있는 시험 문제 아래에는 그 문제들에 대한 정답이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답을 비교해서 틀린 답은 고치면서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공부해 나가기 전에 배운 것들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다 끝내고 나면 총정리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각 장의 시험 문제들을 다시 보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정리 시험을 끝내면 이 책을 주신 분에게 시험지를 주시든가 아니면 책의 뒷표지에 있는 주소로 보내셔서 채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십계명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 제1장

# 율법의 대단한 영향력

혹시 십계라는 오래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영화에서 보았던 아마 대단히 멋진 장면을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장면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등.. 아주 굉장한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우리가 영화나 TV에서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려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실제로 있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실제로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갔고 실제로 두꺼운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들을 새겨넣으셨습니다.

이 장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에게 애당초 그의 법을 주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을 다 공부하게 되면

-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어디에 써 놓으셨는지
- 왜 하나님께서 법을 두 번 쓰셨어야 했는지
- 하나님의 법의 세 가지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십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두 개의 돌판에 새겨진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다른 곳에 법을 쓰셨습니다.

즉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계명들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벌써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법들은 마치 본능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본능적으로 이미 알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법을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아직도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어떤 일들은 옳고 어떤 일들은 옳지 않다는 것을 서로 인정합니다.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 하는 것이나 그냥 감정에 못 이겨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인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자연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1.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쓰신 장소는 사람의 \_\_\_\_\_입니다.
2.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미 본능적으로 \_\_\_\_\_ 태어났습니다.



3.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법을 우리는 \_\_\_\_\_이라고 부릅니다.

(해답은 8 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법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이 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가 마음 속에 새겨진 자연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건물 벽에 십계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진흙을 던져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흙을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십계명의 말씀들이 진흙에 덮혀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와같이 우리도 지금 마음 속에 있는 양심에 대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어길수록, 진흙을 계명에 던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서 점점 마음 속에 있는 계명들을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뭔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냥 그 일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그 잘못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 양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번째와 세번째로 같은 죄를 짓게 될 때에도 역시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번째, 다섯번째 그리고 여섯번째로 같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지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한 열번째 쯤 되면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죄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점차 그것을 우리의 나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똑같은 죄를 한 스무번 정도 짓게 되면 나중에는 아예 나약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계명이 새겨진 곳에 진흙을 아주 많이 던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보이지 않게 되고 죄에 대한 고통마저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4. 우리의 죄악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_\_\_\_\_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5. 우리가 계명을 더 많이 어길수록 그것은 계명에 \_\_\_\_\_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6. 계명을 어기는데 익숙해지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_\_\_\_\_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해답은 10 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즉시 악이 세상을 다 멸하게 할테니까요! 만약 우리들의 죄가 계속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자연법을 먹칠하게 되면 누구도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다시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쓰시지 않고 두 개의 돌판에 법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두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몇 백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해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사막 가운데 있는 높은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산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호렙산이고 다른 하나는 시내산입니다.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판에 직접 쓰신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돌판들을 산에서 가지고 내려왔고 그것들을 안전하게 잘 보관했습니다. 그는 이 십계명을 자기가 쓴 출애굽기라는 책에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서 기록된 법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7. 하나님께서는 두번째로 법을 쓰셨는데 이번에는 두 개의 \_\_\_\_\_ 에 쓰셨습니다.

8. 하나님께서 법을 써서 주신 산의 이름은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또한 \_\_\_\_\_ 이라고도 합니다.

9. 돌판을 산에서 가지고 내려오고 성경에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은 \_\_\_\_\_입니다.

10. 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_\_\_\_\_ 법이라고 합니다.

(해답은 12 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는 기록된 법이 자연법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자연법은 다 먹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법은 더 이상 우리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법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낡고, 찢어지고, 희미해지고, 또 흠이 묻어 아주 더러워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가려고 지도를 꺼내 보았더니 너무나 더럽고 낡아서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서점에 가서 찢어지지도 않고, 낡지도 않았으며 흠이 묻지도 않은 아주 깨끗한 새 지도를 한

장 사면 됩니다. 그러면 새 지도에서 가는 길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자연법이 바로 이렇게 낡은 지도와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된 법은 새 지도와 같지요. 우리가 길 안내를 받으려면 어떤 지도를 보아야 할까요? 바로 새 지도를 봐야 갈 길을 알 수가 있지 낡은 지도를 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와 같이 마음 속에 있는 자연법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법을 사용해야 우리가 갈 길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11. 기록된 법이 \_\_\_\_\_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12.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명백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_\_\_\_\_ 법에 의지해야 합니다.

(해답은 13 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법을 두 번이나 주셔야 했는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십계명을 주셨는지 알아보시다.

사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에는 세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압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따르고 지키라는 것이요 예의 바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녔을 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말도 같이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때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똥을 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걷다가 똥을 밟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도로 경계석을 쌓아 말이 다녀야하는 길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이런 도로 경계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게 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며 말썽을 부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도둑질에 관한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법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원하면 그냥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항상 싸워야 되겠지요.

하지만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법이 있습니다 (출 20:15).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중에 도둑질해서 법을 어기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거지요 - 도로 경계석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합니다.

13. 법의 한가지 목적은 우리로 \_\_\_\_\_ 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14. 법은 도로 \_\_\_\_\_같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고 말썽을 부리지 않게 합니다.

(해답은 14 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두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법을 거울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밖에 나가기 전에 먼저 거울을 봅니다. 자기의 모습이 단정한지 확인해 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찾아 바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거울에서 머리가 헝클어진 것을 본 사람은 얼른 머리를 빗어 단정하게 만듭니다.

십계명은 우리 영혼에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이 십계명의 거울에 비추어보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또 하나님의 계명들을 얼마나 많이 어겼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인인줄 알았으면 거울을 보았던 사람처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찾아야합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는 전혀 죄를 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거울처럼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5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영혼을 비추어보는 \_\_\_\_\_로 사용합니다.

16. 우리가 \_\_\_\_\_인지 알았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찾아야합니다.

17. 거울로서의 법은 우리에게 \_\_\_\_\_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해답은 16 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되고 나면 법은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를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안내자 역할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나라 - 독일, 일본, 또는 이디오피아 - 로 이사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곳에 갔는데 언어도 모르고 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새로운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의 바른 행동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안내 책자입니다. 그 책만 있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시민처럼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크리스천들도 새로운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마약이나 성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 필요합니다. 십계명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안내 책자입니다.

18. 십계명은 또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_\_\_\_ 책자입니다.

19. 십계명은 \_\_\_\_\_ 시민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해답은 18 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 제1장 복습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는 마치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본능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우리의 죄가 자연법을 먹칠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더 지을수록 자연법은 더 흐려집니다. 그러다보니 누구도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거의 알지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른 곳에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년 전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성경에 적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록된 법이라고 불리는 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법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도로 경계석 같이 우리들을 제대로 된 길로 가게 하고 죄를 짓는 것을 피하게 합니다. 또 거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알려 줍니다.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법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 책자 역할도 합니다.

### 복습 문제

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마음 속에 \_\_\_\_\_ 법을 써 놓으셨습니다.
2. 우리의 \_\_\_\_\_가 자연법을 먹칠해 놓아서 우리가 어떻게 법을 따라야 할 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두개의 돌판에 법을 쓰셔서 \_\_\_\_\_ 라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4.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이 십계명을 성경에 적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_\_\_\_\_법 이라고 불리는 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5. 법은 도로 \_\_\_\_\_으로서 우리로 제대로 된 길로 가게 합니다.
6. 법은 \_\_\_\_\_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 보여주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7. 법은 또한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_\_\_\_\_ 책자 역할도 합니다.

(해답은 99 페이지에 있습니다)